

# '설 명절, 국산 과일로 건강 선물하세요'

### 맛깔 좋고 영양 풍부... 농진청, 좋은 과일 고르는 요령 소개

올해 설에는 맛깔스럽고 영양이 풍부한 국산 과일 건강을 선물하면 어떨까?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주요 과일의 효능과 좋은 과일 고르는 요령을 1일 소개했다.

올해 사과와 배 출하량은 지난해 긴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일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설맞이 판촉행사(대

한국 농협)가 있다. 설 특색의 '농축산물 소비 쿠폰'을 활용하면 된다.

대형마트에서는 매장 내 행사를 통해 행사 품목을 20% 할인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각각의 쇼핑몰에서 20%(최대 1만 원)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전통시장·직거래 장터에서는 구매 금액의 30%(최대 1만 원)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과일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

움이 되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다. 사과는 안토시아닌, 프로시아니딘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기관지와 허파 등 호흡기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케르세틴 등은 기침,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수분과 당분, 아스파라긴산도 풍부해 이뇨 작용을 도와 독소를 배출시키고, 피로를 푸는 효과도 있다. 감은 비타민 E

이(A)·비(B)·시(C)가 모두 풍부해 항산화, 피로 해소,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감의 껍질을 내는 성분인 탄닌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과일을 고를 때에는 겉모양을 살펴보고 흠집이나 상처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과는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고 단단한 것을 고른다. 향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며 전체적으로 고르게 색이 든 것이 좋다. 배는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상처나 흠집이 없는 것을 고른다. 꼭지 반대편 부

위가 툭툭하거나 미세한 검은 균열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단감은 꼭지와 과일 사이에 틈이 없이 붙어있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얼룩이 없고, 만졌을 때 단단한 것이 신선해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박정관 과수과장은 "올해 설에 출하되는 과일은 지난해보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는 높다"며 "코로나19로 가족 모임이 힘든 상황이지만, 건강에 좋고 맛있는 우리 과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당기 순이익 38억원 달성  
남원농협,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 성과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사진)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도 당기 순이익 38억원을 달성하는 건실한 경영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농협은 조합원에게 출자배당 14억원, 이용고배당 8억8,000만원(현금) 배당, 자본적립금 10억원 조합원 출자금 적립 등 총 32억8,000만원의 높은 배당을 실시했다.

특히 농업인 생산기반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전 조합원에게 영농자재교환권을 지난해보다 5만원을 증액해 1인당 20만원씩 14억8,000만원, KF94 마스크를 1인당 50장씩 40만장과 마스크 목걸이를 배부한다.

이 외에도 원예용농약, 제조제, 종자소독제, 하우스스파이크는 10%, 하우스필름은 7%를 할인 판매하는 등 각종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운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방침이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2020 결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조합원과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올해 8월 남원농협 고속통합센터 종합시설 개업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해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농가 소득증대와 조합원 실익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내실있는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일 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

##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

### 전북은행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기부... 4000만원 상당

전주를 대표하는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일 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서한국

수석부행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노조위원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소외계층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30여명은 4,00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 1,600상자에 떡국, 라

면, 김, 커피, 즉석식품 등 총 10종의 생필품을 직접 포장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된 선물꾸러미는 각 시·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서한국 수석부행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전북은행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전북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10% 할인구매 가능

### 이달 한달동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설맞이 특별할인 이벤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2월 한 달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북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한해동안 할인을 10%, 월 구매한도 100만 원(기존 70만 원)을 적용·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결제·선물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설 명절 기간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추

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NHN(페이코), 코콘(체크페이), 티머니(티머니페이) 등 은행·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번 특별 판매기간 동안 가동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

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는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특별 할인 판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하림, 'IFF 무항생제 다짐육' 설맞이 할인 판매

종합식품기업(주)하림이 설을 맞이해 7일까지 IFF 무항생제 다짐육 5종을 할인 판매한다. 하림 공식쇼핑몰 '하림e샵(harimedak.com)'을 통해 정상가에서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하림 IFF 무항생제 다짐육은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닭고기의 가장 부드러운 부위인 안심과 고단백 저칼로리의 대명사 닭가슴살을 잘게 다져 만든 제품이다. 영하 35°C 이하에서 40분간 개별 급속 동결하는 IFF(Individual Fresh Frozen) 기법으로 닭

고기의 신선함을 그대로 살렸다. 50g씩 포장되어 있어 필요한만큼 꺼내 쓰기 좋고 1인 가구도 부담 없이 요리할 수 있다.

IFF 무항생제닭안심살 다짐육은 부드러운 닭안심을 4mm로 잘게 다진 제품이라 동그랑땡, 고추전, 깻잎전 등에 활용하기 좋다. IFF 무항생제 닭가슴살 다짐육은 담백한 닭가슴살을 8mm 크기로 자른 제품이라 접이나 잡채에 잘 어울린다. 닭가슴살과닭안심살 모두 지방이 적고 탄백질이 풍부해 만두소를 만들 때 사용해도 좋다. 뷔



음밥이나 죽, 이유식 등에 활용해도 된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설을 맞이해 명절 음식들더 간편하고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는 IFF 무항생제 다짐육'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며 "신선하고 고단백 닭가슴살과 닭안심살 다짐육으로 가족들과 맛있고 건강한 명절 음식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 '앞장'

### 전북농협, 윤리경영 실천 결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일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과 건전한 설 명절 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직원 개인마다 준법 자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청렴한 윤리경영을 실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북농협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비롯한 제 규정 및 청탁금지법 준수와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다짐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에 '임직원 간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에 동참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준수하기로 하는 등 건전한 명절 문화 정착을 위한 전북농협 임직원 모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전북농협은 건전한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매월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직원 개인마다 준법 자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청렴한 윤리경영을 통해 '함께 만드는 청렴농협' 구현에 전사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이 매우 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 받는 '함께하는 100년 전북농협' 구현을 위해서는 전북농협 임직원 모두의 청렴한 윤리행실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전북 지역 생산 '하라봉' 첫 판촉행사 열어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하라봉 판촉전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농협 전주하나로클럽에서 진행한다. 1일 밝혔다.

이번 판촉전은 전북농협이 주관하며 전북 지역 농가 생산한 하라봉을 익산원에농협APC에서 선별·포장하고 전주하나로클럽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만감류는 제주도에 비해 일조량이 높고 토양이 좋아 당도에 우위가 있으며 재배지에서 판매처까지 거리가 짧아 신선한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전라북도 만감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공산출하회와 함께 공동재배 뉴얼 제작 및 공유를 확대해 더 좋은 품질의 만감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사과·배·단감·뽕은감 등 과수 4종

##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 농협손보, 내달 5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장 김현미)은 올해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뽕은감)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지난달 29일부터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과·배·단감·뽕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비진, 화재뿐 아니라 동상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가입 농가는 필요에 따라 보장받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보험료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보험인만큼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고, 여기에 지자체에서 30~45%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시군에 따라 5~32%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 4종에 대한 적과종료 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 수준에 따라

50%, 70%형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 기준을 완화했다.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 기준도 '3년 연속 가입 및 누적 손해를 50% 이하'에서 '3년 연속 가입 및 누적 손해를 100% 이하'로 개선됐다.

또한, 미세 살수장치 등 냉해 저감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 폭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상향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했다.

작년에는 냉해, 태풍 등의 연이은 발생으로 과수 농가 피해가 극심했으며, 도내에서 과수4종 품목으로 1841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해 257억 원을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130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 품목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과수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되고 있어 농가 경영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강성욱 신임 LX파트너스  
대표이사 임명... 2024년 1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열·LX)의 자회사인 LX파트너스의 대표이사에 강성욱 씨(51)가 취임했다.

LX는 출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파트너스 대표이사에 강성욱 씨가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신임 강성욱 대표이사는 "환경과 시설물 관리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상생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이사는 군산시의회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LX 파트너스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4년 1월 31일까지다. /김윤상 기자

지난해 4차 백년가게 선정  
'가족회관서' 현판식 행사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비빔밥 전문음식점 '가족회관'을 시작으로 우리 토종공민을 이용하는 '함씨네토종공민'·'소고기·한정식 전문점 '금양정', 안경전문가 집안이 운영하는 고향 '안경나라콘택트', 40년 기술력을 보유한 '유림국가시공사'까지 총 다섯 곳에 백년가게 현판이 걸린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해 4차로 백년가게에 선정된 전북지역 5곳 중 첫번째로 전주 대표 비빔밥 전문점 '가족회관'에서 1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1976년 창업한 '가족회관'은 전주 음식명인 1호인 1대 창업자와 현 대표자인 딸, 손녀까지 3대가 함께 한우물 경영철학으로 운영하며 전주를 대표하는 비빔밥 전문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윤상 기자